

미국 수도에서 강제 장기적출 반대 토론회 개최

[명혜망] 2018년 7월 26일,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 모임(DAFOH)'이 워싱턴 D.C.의 대사관 지역에 위치한 코스모스 클럽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제1회 '종교 자유 촉진' 장관급 회의의 마지막 날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장기 때문에 살해되는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과 관련된 내용이 종교 자유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날 행진 대오가 시청 광장을 출발하자 거리의 수많은 사람은 잇달아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녹화했다. 한 관람객은 감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좋은 단체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박해를 받느냐고 물었다. 한 관람객은 눈물을 흘리면서 파룬궁 수련생이 이런 잔인한 박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몰랐다고 정말 그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3퇴(퇴당, 퇴단, 퇴대)'한 화인은 파룬궁 수련생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제 장기적출은 은폐된 집단학살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 모임' 사



토스텐 트레이

무총장 토스텐 트레이는 중공이 1999년 7월부터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에는 7천만에서 1억 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있었고, 강제 장기적출은 이번 박해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는 강제 장기적출의 배후 구조가 은폐된 집단학살의 정의와 부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룬궁 단체는 중공이 제거하려는 목표입니다."

의사 제시카 루소는 '은폐된 집단학살'의 개념을 더욱 분명히 설명했다. 즉 어떤 군

체를 은밀한 방식으로 차츰차츰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파룬궁이 당하고 있는 박해가 바로 은폐된 집단학살이며, 중공 당국이 파룬궁 수련생을 대상으로 육체에서부터 심리, 정신과 사교 방면까지 각종 타격을 가하고 있지만, 수단은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중국사회 속에서 차츰차츰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에게는 이런 음흉하고 강력한 집단학살이 치명적이다.

미국 전 하원의원, "파룬궁은 잔혹한 박해에 직면해 있다."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제1회 '종교 자유 촉진' 장관급 회의도 같은 날 막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전 상원의원 프랭크 울프는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특별히 언급했다. "파룬궁은 잔혹한 박해에 직면해 있는데,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된 보도는 (중공이) 그들을 살해해 장기를 판매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종교 박해에 대해 책임을 외면할 것입니까?"

골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국 간부가 단호하게 '3퇴'에 동의하다

[대륙 투고] 나의 한 친척은 우리 시 모국의 간부다. 한번은 내가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 CD를 주자 그가 말했다. "나한테 보여줘서 뭘 하려고? 나는 골수 마르크스주의자야! 내가 만약 안 믿으면 공산당이 임금을 안 줄 거야." 내가 말했다. "잘 보세요. 밥도 좋지만, 목숨도 지켜야죠." 그가 말했다. "좋아. 여기 놔두면 볼게."

얼마 후, 나는 다시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를 보니 마르크스의 사악한 면목을 알아차린 듯 자신이 골수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네가 나한테 관심이 많다는 걸 알지만, 나는 고집이 아주 세고, 당에 가입한지 이렇게 오래돼서 탈퇴할 수가 없어."

내가 말했다. "90년대 동구권에 하룻밤 새에 격변이 일어났고, 강대한 소련을 포함해서 공산당이 해체된다고 하면 해체됐어요. 공산당은 하늘을 거역하는데, 그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은 바로 거짓말과 폭력이에요. 우리의 조상인 공자, 노자는 우리에게 '화(和)'와 '인, 의, 예, 지, 신'을 귀하게 여기도록 했고, 파룬궁은 '진(真), 선(善), 인(忍)'을 말해요. 모두 모순을 선해할 것을 주장하고,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한 집안 사람이고, 친척이라고 해요. 하지만 공산당은 투

쟁, 이색분자 소멸, 독재를 이야기해요. 진, 선, 인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필사적으로 없애려 하죠. 전 세계가 파룬궁을 지지하는데, 유독 중공만 탄압해요."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내가 말했다.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공산당 대오 속에 있는 건 치욕이에요!" 그가 말했다. "내가 (파룬궁을) 배운다면 공산당은 임금을 안 줄 거야." 내가 말했다. "배우라는 게 아니고, 시비를 분명히 가리라는 거예요. 공산당 조직 안에서 (당을) 탈퇴하는 게 아니고, 해외 대기원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거예요."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래도 나한테는 공산당이 있어야지." 내가 말했다. "당신이 상상한대로 일을 해 주면 상사가 돈을 주죠. 어느 국가든 모두 그래요. 심지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해외에서는 더 많이 줘요. 현재 인류의 도덕은 최고로 위험한 가장자리로 미끄러졌어요. 인류를 구제하려고 우리 사부님께서 파룬따파를 전수하셨어요. 진, 선, 인만 인정하면 세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산당은 오히려 거짓말로 파룬궁을 헐뜯고, 파룬궁 제자를 박해하면서 세인들이 진상을 아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하늘이 이 사당을 멸망시킬 거예요. 하지만 진, 선, 인을 인정해도 공산당의 무신

론 조직을 떠나야만 신들에게 구도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당만 조직에 가입할 때 주먹을 들게 하고, 그를 위해 죽을 때까지 분투하고, 영원히 당을 따라 가겠다는 선서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 단, 대에 가입한 모든 중국인은 반드시 탈퇴 성명을 해야만 애초에 중공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했던 독한 맹세를 취소할 수 있어요. 실명, 아명, 가명도 모두 돼요. 탈퇴를 하고 안하고는 당신 개인의 일이지만,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조직부에 있는 서류상으로는 탈퇴가 안 될 테고, 사람들이 알면 안 돼." 내가 말했다. "누가 알아야? 하늘만 알아요. 공산당 조직을 통해 탈퇴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말했다. "파룬궁이 탈퇴시켜도 효력이 있어?" 내가 말했다. "파룬궁이 탈퇴시켜도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파룬궁은 사람을 구하러 왔거든요! 제가 모모라는 가명으로 당, 단, 대에서 탈퇴시켜 드릴게요." 그가 말했다. "좋아." 나는 떠나면서 다시 그에게 물었다. "제가 모모라는 가명으로 당, 단, 대에서 탈퇴시켜 드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좋아."

‘당’을 따라 어디로 가는가?

[명혜망] 몇 십 년 동안,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은 그가 장악한 모든 여론 선전 도구와 각종 예술형식을 이용해 중국인들에게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라”는 말을 주입시켰다. 표면적으로는 공산당이 중국인들과 함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해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이 중국인을 지옥의 대문으로 끌고 가고 있으며, 중화민족을 파멸의 위험한 상황으로 밀고 있다. 이것은 공산 사당의 최종 목적이다.

먼저 공산당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보자.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에서 빈둥거리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첫 머리에 쓴 말이다. 서방의 단어 중에서 유령과 마귀는 동의어이다. 중국어 단어 중에서 유령은 곧 저승의 망령이다. 우리는 인성이 없고 사람을 해치는 사령을 마귀라고 한다. 공산 사령은 인체에 달라붙어 사람의 대뇌와 사상을 조종할 수 있다.

공산당의 교주 마르크스는 열여덟 살 때 <울안엠>이라는 희곡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파멸, 파멸... 광야의 울부짖음을 따라 전 인류에게 저주를 거네... 어둠 속에 끝없는 지옥의 틈새가 우리를 향해 동시에 열렸구나. 당신이 떨어지면 나도 웃으며 뒤따라리. 그리고 당신의 뒷전에 속삭이리. ‘아래서 만나자. 동지여!’... 만약 모든 것을 삼키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뛰어들어 이 세상을 파멸시키리라.”

우리는 대륙의 영화 작품 중에서 늘 중공 고관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죽어서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 어디에 가서 마르크스를 만나는가? 지옥이다! 모름지기 중공의 당, 단, 대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사후에 모두 지옥에 가서 마르크스에게 신고를 할 것이다. 이것은 절대 일부러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며, 마르크스와 공산당이 지옥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당을 따라가면 어떤 결말이 있는가? 당을 따라간 중공 고관은 모두 부패해 떨어졌다. 당을 따라간 노동자는 실직했다. 당을 따라간 농민은 하층민이 되었다. 당을 따라간 사법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박해하는 중공의 도구가 되었다. 당을 따라간 무경과 군대는 중국인을 진압 살해하는 도살자가 되었다. 당을 따라간 중국인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독한 음식을 먹으며 위조한 가짜 상품을 쓰고 있다. 당을 따라간 중국은 암과 각종 만성질환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 당을 따라간 중화민족은 전통도덕과 신용을 모두 잃고 도덕과 신용의 위기를 맞았다... 당을 따라 끝까지 가면 결국 각 개인의 자폭과 중화민족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당’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

의 멸망이 있다!

2004년 11월, 해외 중문 매체 <대기원시보>가 발표한 <9평 공산당>은 공산당의 탄생과 사악한 본질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냈고, 중화 전통문화에 대한 중공의 파괴, 자연계에 대한 파괴, 그리고 중국인 살해에 관한 각종 범죄행위를 서술했다. <9평 공산당>의 출간은 전 세계에서 ‘3퇴’ 열풍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3억이 넘는 중국인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을 탈퇴함으로써 중공을 향해 조종(丧钟)을 울렸다.

“선유선보, 악유악보(善有善报, 恶有恶报)”는 중화 전통문화와 불가 사상의 정수다. 선과 악, 정과 사는 인성의 양면이며, 선이나 악이나는 모두 인간의 선택이지만, 결과는 같지 않다.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입는데, 단지 빠르고 늦고만 다를 뿐이다. 희망컨대 모든 중국인이 <9평 공산당>과 대기원의 신간 <공산주의의 최종 목적>을 읽어 하늘과 땅과 인류에 반하는 중공 사당의 사악한 본질을 똑똑히 알고, 인류 파멸이라는 공산당의 사악한 목적을 똑똑히 알고, 다시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믿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다시는 ‘진, 선, 인’을 적대시하지 말고, 파룬궁 수련자 박해에 가담하지 말며, 이미 가입한 당, 단, 대 조직을 탈퇴하고, 사악한 대오와 결별하고, 사당을 따르지 말며, 사당의 순장품이 되지 말고, 선량하고 정직한 좋은 사람이 되며, 광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지옥의 문은 그런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며, 죽을 때까지 당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열린다.

중공 사당을 똑똑히 알고,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에게 생명의 구원이며, 중화민족의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선택이자 희망이다. 깨닫고, 자성하고, 자구하는 것이야말로 중화민족과 중국 인민의 유일한 출로이다.

【‘3퇴’하여 복을 받다] 진상을 알고 ‘3퇴’하여 정말 목숨을 구하다

[장시 투고] 나는 올해 60세로, 파룬궁 수련생이 전해준 많은 진상자료를 보았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 진상을 안 후 중공이 너무나 사악하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3퇴’)했다.

이전에 나의 신체에는 잔병이 그치지 않았고 ‘3고(고지혈, 고혈압, 고혈당)’도 있었다. 내가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외우고부터 각종 잔병이 사라지고 ‘3고’도 사라졌다. 특히 최근에는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올해 5월 7일,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90세 된 장모님을 뵈러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도로가 한 마을의 모퉁이를 지나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다. 시야가 몹시 흐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외웠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커다란 트레일러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놀라서 정신이 멍해졌다. 화물차가 2미터도 안 되게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눈앞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작은 부처가 나타났다. 얼핏 보니 그가 두 손으로 화물

차를 밀자 화물차가 단번에 주행 방향을 바꾸어 옆으로 지나갔다.

나중에 기사는 자신이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며 말했다. “차가 커다란 나무에 부딪힌 것같이 그 에너지가 강력한데다 차가 그렇게 단번에 노변으로 밀려났으니 당신은 정말 복이 많고 명이 길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화물차가 절대 멈출 수 없었고, 당신도 죽었을 겁니다!” 나는 평소에 내가 “파룬따파 하오, 쩐싼런 하오”를 외워 복을 받은 것이고, 파룬궁 사부님께서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파룬궁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며, 나는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깊이 체험했다! 공산당이 일관되게 선전하는 “무신론”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세상에는 정말 신불이 있고, 파룬따파는 세인을 구도하는 불법(佛法)이다.

동포들이 중공의 거짓 선전을 믿지 말고, 파룬궁의 진상을 많이 알아보고, 사악한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해 신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